

土亭秘訣의 창안자

李之函

(1517~1578)

朴 星 來
 (한국외대교수 / 과학사)

우리나라 역사상 象數學의 대가였던 서화담의 제자 이지함은 1백44개의 괘(卦)를 배치해 사람의 운명을 예언한 「土亭비결」을 창안한 자연철학자이다. 栗谷의 가까운 친구였던 이지함은 마포의 흙집에서 살았고 쌀장수로 번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준 奇人으로 유명하다.

해마다 음력으로 새해가 되면 생각나는 우리 과학자에 이지함(李之函, 1517~1578)이 있다. 그의 이름보다 오히려 호 토정(土亭)으로 더 유명한 그는 정월이면 한번씩 놀러다 보게 마련인 우리의 「토정비결」때문에 더욱 유명한 것이다.

바로 그 「토정비결」속에 수학적 질서를 찾아내려던 이지함의 집념이 감춰져 있다. 1백44가지의 괘(卦)를 배치해 놓은 규칙성도 그러하지만 그 내용을 다시 좋은 예언과 나쁜 예언으로 나눠 알맞게 배치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여기도록 유도한 방법 역시 대단히 「과학적」이라고 할만하다. 그것은 말하자면 통계학, 확률론의 발달과 연계된 우리의 과학 및 수학 전통이다.

수학적 질서 도입 노력

사실상 이지함은 우리 역사상 서경덕과 함께 상수학(象數學)의 가장 대표적인 대가였다고 할 수 있다. 아직 상수학에 대해서는 그 상세한 내용도, 그리고 역사적 의미도 밝혀져 있지 않지만 명기(名妓) 황진이(黃眞伊)의 애간장을 끊어놓은 것으로 잘 알려진 송악의 선비 서경덕(徐敬德, 1489~1546)은 바로 그의 스승이었다. 화담(花潭) 서경덕이 남긴 글들을 모아 놓은 「화담집」에 보면 우주의 시작과 그 변화의 주기를 비롯하여 온갖 것들에 대한 수학적 질서를 밝혀 보려는 그의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왜 1년은 365일이며, 한해는 12달인가? 또 목성은 왜 하필 12년에 한번씩 하늘을 한 바퀴 돌고 있는 걸까? 역사는 또 어떤 기간을 주기로 흥망을 거듭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상수학이 가진 관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것들이었다. 서경덕은 이런 문제를 관심있게 연구한 자연철학자였다. 그러나 이지함은 그의 문집 「토정집」에 그리 많은 상수학의 흔적을

남겨놓지는 않았다. 어느 의미에서는 바로 「토정비결」이 그대로 그의 상수학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 할만한 것이다.

고려말 이색의 9대孫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의 친구였던 이지함은 고려말의 유명한 학자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6대손이며 한산(韓山)이 본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형인 이지번(李之蕃)의 집에서 자랐다. 아버지 겸 스승 노릇을 해준 셈인 그의 형에게는 당대 유명한 아들 둘이 있었는데 영의정까지 지낸 이산해(李山海)와 이조판서까지 지낸 이산보(李山甫)가 그들이다. 유명한 조카 둘을 갖고 있었던 것에 비해 자식을 일찍 잃은 그에게는 관운 또한 없어서, 기껏 말년인 1573년부터 얼마동안 6품 벼슬인 포천(抱川) 현감과 아산(牙山) 현감을 지낸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죽은 다음 그의 명성은 널리 인정되어 이조판서로 추증(追贈)되었고, 아산과 보령의 서원에 그의 위패가 모셔지게 된다.

이지함에게는 다른 어느 인물의 경우보다도 괴상한 숨은 이야기가 많다. 때로는 믿기 어려운 이런 일화들이 전해지는 것으로 보아 그가 당대의 기인(奇人)이었음을 죽히 짐작할 수 있다. 우선 그의 호는 대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토정'(土亭)인데 '흙으로 지은 정자'란 뜻이 된다. 아마 그 굴같은 거처는 아래로 향해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흙을 쌓아서 높게 쌓은 흙 정자였던 것 같다.

토정이 마포 강가에 흙집을 짓고 산데에는 또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그는 자그만 배의 네 귀퉁이에 커다란 바지를 달고 세번이나 제주도를 다녀왔고 또 여행을 많이 했는데 이런 가운데 상업의 중요성에 눈을 떴다. 다 아는 일이지만 조선 양반사회에서는 양반이 상업에 중

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이지함은 실제로 수만석의 곡식을 운반해다가 마포에 쌓아두기도 했는데 그 곡식은 그가 무인도를 개간해서 박을 심어 그것으로 바가지를 수만 개 만들어 팔아서 비싼 것이라고도 전한다. 그리고 몇 년인가 이런 장사를 하고는 홀연히 그 곡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가 포천 현감으로 있을 때에는 포천의 가난한 사람들을 모아서 무인도에 들어가 그곳에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꿈을 갖고 있기도 했다. 이지함은 언젠가 소금장수도 그리고 생선장수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마 마포에서 쌀 장수하던 일과 비슷한 경우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문벌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사귀어 그가 가장 사랑하던 제자는 노비출신이었다. 또한 그는 대단히 강인한 체력의 소유자이기도 했는데, 아무리 더위도 물을 마시지 않고 또 추위에 아무데서나 잠을 잘 수 있었으며 업동에도 홀웃으로 지냈고 열흘쯤 굶고도 끄떡하지 않았다고도 전한다.

7천개의 글귀로 풀이

울곡과는 아주 가까워서 평생 자주 교제했는데 특히 천문학 등에 관해서는 울곡이 토정의 의견을 묻곤 했다. 한번은 서울에 요성(妖星)이 나타난 일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울곡이 그의 의견을 묻자 토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 생각으로는 그것은 요성이 아니라 서성(瑞星)이요.” 놀란 울곡이 그 까닭을 캐 물었다. 토정의 대답은 “그때 마침 세상 인심이 흉흉하고 도덕이 땅에 떨어져 있었는데 요성이 나타나 바람에 위와 아래가 모두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조심하여 별일 없이 지날 수가 있었으니 이 어찌 상서로운

별이라 아니하겠소?”

요성이란 대개 혜성이나 객성, 또는 그 비슷한 별을 가리키는 것으로 옛사람들은 그런 별이 나타나는 것을 아주 불길한 조짐이라 여겼다. 하지만 당시의 천문사상에 통달하고 있던 이지함은 이 요성의 나타남을 그 나름대로 새롭게 해석하여 흉조가 아닌 길조라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꿈보다 해몽’이란 옛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지나치게 어떤 틀에만 얽매어서는 창조적 활동이란 기대할 수 없는 법이다. 토정 이지함은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그의 불후의 명작 「토정비결」을 완성했던 것은 아닐까?

“동풍에 얼음이 녹으니 고목에 봄이 오도다”(東風解水 枯木逢春)로 시작하여 “수와 복을 함께 갖추니 이름은 세상에 떨치도다”(壽福兼全 名振四海)로 끝나는 「토정비결」에는 이런 글귀가 7천567개나 들어 있다. 여기에는 모두 1백44개의 괘(卦)가 들어 있으니 한괘마다 이런 글귀가 49개씩 들어있다는 것을 뜻한다. 「토정비결」로 그 해의 신수를 보려는 사람은 자기 생년, 생월, 생일을 가지고 상괘(上卦), 중괘(中卦), 하괘(下卦)를 계산해서 이 3괘를 합해 자기 괘를 얻는다. 누구나 바로 이 1백44개 가운데 어느 한 괘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각 괘에는 1년 동안을 통틀어 예언한 개괄적 예언이 위와 같은 글귀 12개로 되어 있고 이에 덧붙여 달마다 3개의 글귀로 된 예언이 있다. 한 괘는 48개의 글귀로 구성되었음을 뜻한다.

물론 사람의 한해 동안의 신수를 1백44가지로만 분류하고 있는 만큼 따지고 보면 우스운 일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운명을 갖게 될 것인가?

「토정비결」 지금도 人氣

그런데 아주 흥미있는 사실은 「토정비결」을 보는 사람들은 과학이 아주 발달했다는 지금도 줄을 줄 모른다는 사실이다. ‘지나간 예언은 다 맞는다’거나 하면서 「토정비결」의 예언을 제법 굳게 믿는 사람도 없지 않다. 이 예언서는 적당히 호호해서 아주 틀릴 가능성이 적다. 게다가 3분의 2는 행운을 약속해 주는 예언이며, 적어도 불행을 예언하지는 않는 그런 내용이 거의 4분의 3을 차지한다. 사람들에게는 ‘믿겨봤자 본전’이라는 반응을 얻기 꼭 좋은 구조로 되었다는 뜻이다.

전체 6천9백12개의 글귀를 분석해 보면 길운(吉運)을 예언하는 내용이 3천3백18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예언이 1천5백87개, 그리고 나쁜 예언이 2천17개로 되어 있다. 거의 7천개 가운데 2천개만이 나쁜 예언이라니 얼마나 편파적인 예언서인가를 알 수 있다. 따라서 「토정비결」을 본 사람은 거의가 대체로 자기의 한 해 운수가 대체로 좋다는 인상을 받고 기분 좋아하게 마련인 것이다. 이지함은 이런 통계적 수단을 동원해서 ‘이주 잘 맞는 예언서’를 만들어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토정 이지함은 인간세상의 수학적 질서에 관심이 많았던 자연철학자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정말로 「토정비결」이 그의 저술인지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토정비결」이 세상에 널리 퍼진 것은 1세기 남짓 밖에 되지 않는 것 같고, 19세기 초까지도 그것이 예언서로 쓰여진 증거는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혹시 「토정비결」이 그의 작품이 아니라 해도 이 예언서가 그의 정신을 담은 것만은 분명하다. ㉞